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38호 현대불교 29  
2011년 6월 1일(음 4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관습에 의해서만 살지 말고 좀 쾅총 뛰어넘어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신이 돼서, 부처님과 중생들이 둘 아니게 어떠한 문제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나무들도 무정물들도 생물 전체가 다, 어떠한 문제를 생각했다 하면 같이 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나 아니냐는 데가 없어서 금속과도 같고 전력과도 같다이 소립니다.

부처님이란 뭘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는가. 내가 어느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에 여러분이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엄마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하셨습니까, 아내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됐을 때, 형님이 됐을 때,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셨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요리를 해서 드러야만이 맛있게 집어 잡습니까...

우리 마음은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뭐가 놓여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이런 것도 다 캐치해 가지고 지금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크고 작음이 없이 여여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지 못하고 항상 물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요것은 못한다, 요것은 한다, 요것이 간다 온다...; 이러한 관습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계십니다. 좀 쾅총 뛰어넘어 보십시오. 내 한생각에 의해 내 몸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즉 말하자면 일체 생명들,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고 바깥으로는 바로 마음과 마음을 조절하면서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서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선행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안 되십니까?

마음에는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높지 않고 물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깊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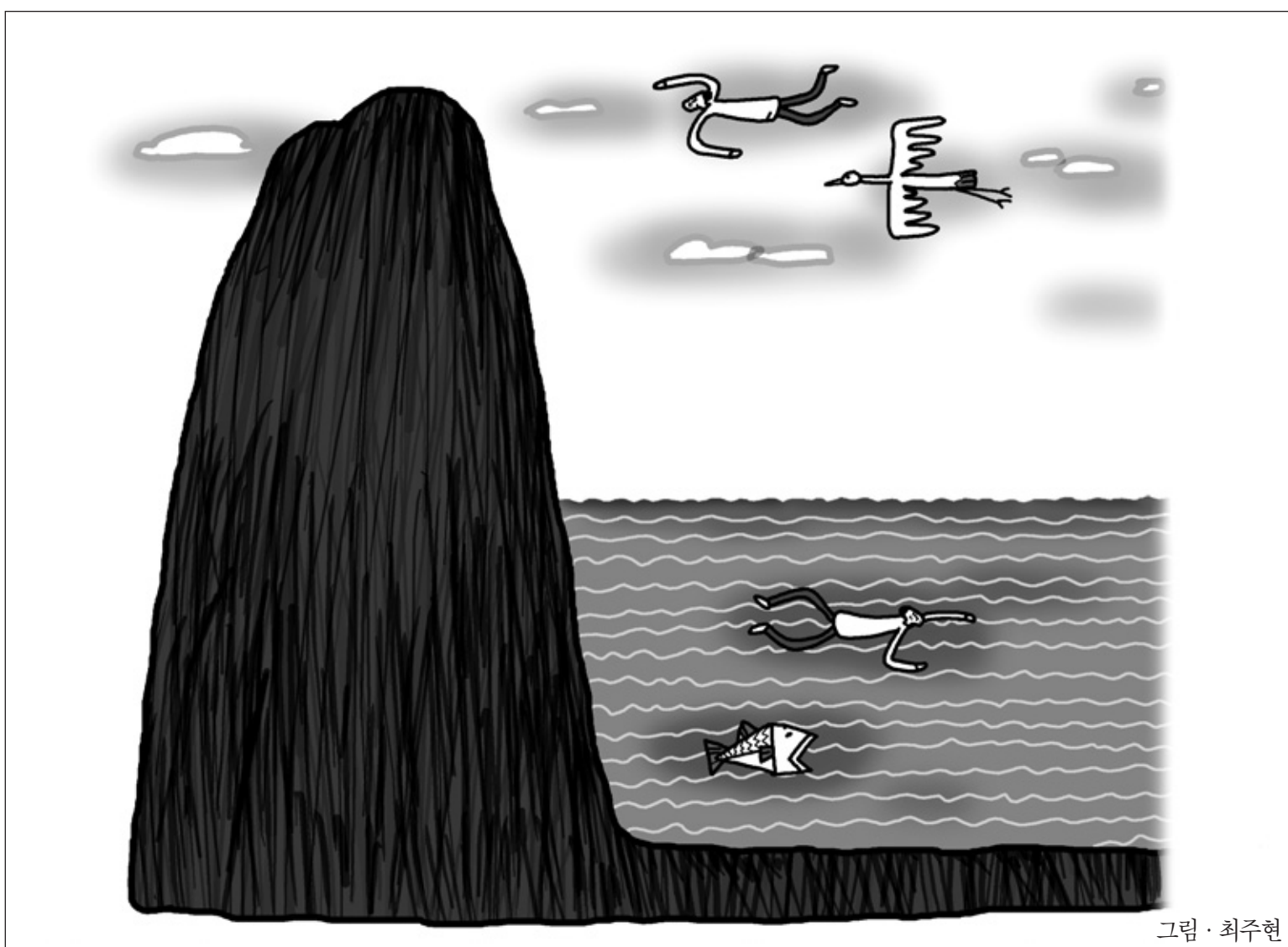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은 어디고 통하니까 그 속을 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아무리 산이 높고 아무리 은산철벽이다 할지라도 마음은 통하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고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마음을 넓게 쓰십시오. 돌로 보지 않는 눈으로 보고, 돌로 보지 않는 귀로 듣고 마음을 넓혀서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웅중하게 '요거는 요거고 조거는 조거다.' 하고 적대시하게 되면 그 크나큰 진리를 타파하지 못하며 깨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구에 붙어 있는 생물인데 이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시거나 합니까? 지구가 버스라면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 네 집 내 집, 내 결상 네 결상, 네가 잘했으니 내가

잘했으니 하고 온통 네 것 내 것을 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가요. 돈이 들어오다가도 '아이고, 이 집에 들어가 봤자 괴로움만 가져올 거야.' 하고 나간다고요.

또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가 내면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내부에 있는 생명들, 의식들은 내 몸뚱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어디로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 줄을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소가 잘못 가면 '이러!' 하면서 고삐를 잡아당기듯이 하나 하나 다스리면서 거기가 다시 놓아야 합니다. 나았던 구멍에다 자꾸자꾸 다시 뉘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전에 한 말을 그냥 되합니까,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온다고요. 물질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입력을 해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지 누가 입력을 해 넣고 안 해 넣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팔자 운명과 고통, 유전성 영계성 염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그 나오는 데다가 되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게

됩니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했던 것이 다 없어지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나오는 데다가 놓는다면,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 되놓는다면 바로 앞서의 입력했던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현실의 그릇이 비었다가 찼다가 비었다가 찼다가 하면서 항상 밝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여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유스럽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생중생들이 다, 내가 마음먹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됴으로써 한마음으로 뭉쳐 준다이 소립니다.

우리가 이 모두를 잘 안다면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은 아예 이 말을 좀 하다가 저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군요. 아마 여러분이 이려고저려고 이려고저려고 하니까 나 역시 그런가 봅니다. 하하하... 할 말은 너무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할 말을 제대로 못할까요? 여러분한테 커다란 드럼통으로 기름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작은 그릇으로 받는다면 그냥 밖으로 쏟아질 테니까 그렇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의 그릇에 채워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스스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 질문들 하실 거 있으면 질문들 하십시오.

**질문자(남)** 먼저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회를 위해서 하구(下叩)하신 큰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스님께서 늘 만물만생이 불(佛)아님이 없고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처이고 불국토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의정이 납니다. 혼란한 지금도 불국토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인과 필연의 원칙에 의해서 진리 중의 진리인 불법이 미래에 불국토를 이룬다는 말씀인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알면 그대로 여여하게 바로 불국토인 것이고 모르면 불국토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쳐서 틀이 아닌 도리를 감지하고, 이 세상이 공생으로 공용·공식화 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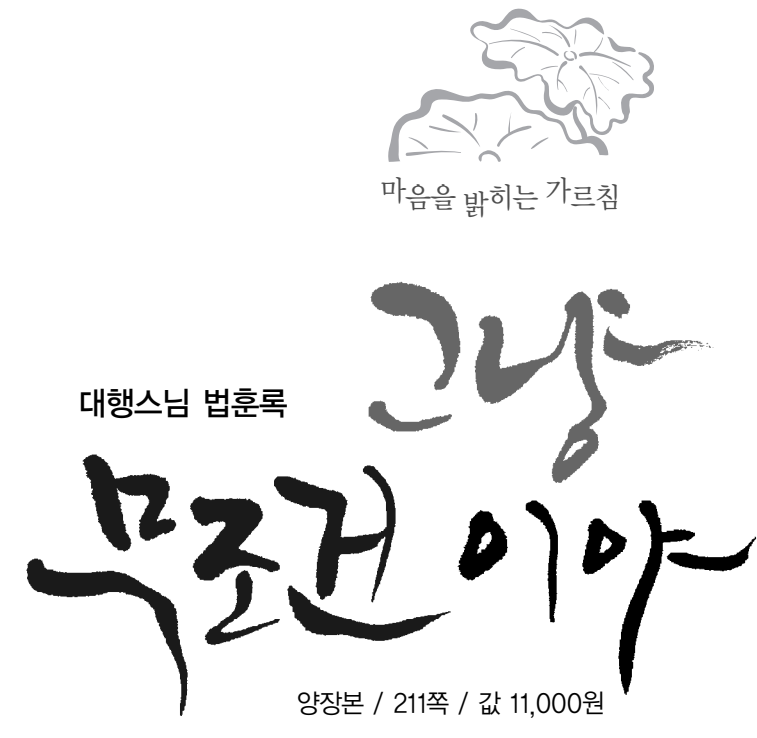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현대불교 현불삼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아무리 은산철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통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불국토다 불국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겠습니다. 전력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금속도 다 똑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용도에 따라 끌어다 쓰는 데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고 저것은 저런 것이고, 이것은 이렇고 저저는 저렇다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력은 다 똑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다 똑같은데 모습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듯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저는 저렇고 하면서 사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요,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불국토고 그대로 아주 자유스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니, 우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은 자유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자유재할 수 있겠느냐?" 그러겠지요? 그런데 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콧방귀 탁 끼고 싱긋이 웃고 돌아가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예를 들어 하늘이 무너진다 하면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죽으면 어쩌나. 우리 식구가 죽으면 어쩌나?' 그냥 발발발발 떨고 찢찢매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을까 봐 발발 떨고 살지 못할까 봐, 채일까 봐, 맞아 죽을까 봐 이렇게 발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불국토가 아니라 지옥인 데요. 그러면 콧방귀 탁 끼고 웃으면서 돌아가는 사람하고 발발 떠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생각 하나 차이로 그렇게 불국토나 지옥이나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국토도 한마음에 있는 것이고 지옥도 한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 생을 다 이끌어서 서로가 상응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대구에 와서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그런지 어딘가 이가 빠진 거 같고 어딘가 꼭 빈 거 같아요. 아마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봅니다. 어딘가가 꼭 빠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진짜로 해주십시오. 가려운 데를 꼭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자2(여)** 저는 의무 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공부 한 지 지금 일 년이 되었습니다. 각 사찰에서 하는 천일 구국 기도다, 평화통

일 염원 기도다 하는 기도회가 한마음을 모으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문제로 전쟁의 위협을 주고 있는데 공부하는 저희들이 원을 세운다면 그들의 남침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요? 스님 설법 중에 '너 앉은 방식이 편안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앉은 방식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차원 높은 공부가 되게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5 재침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차원 높은 공부가 되게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데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스님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

그치고 이사를 가서도 그 이튿날까지도 비가 안 오더라고요. 하하하... 그래서 위기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달나라에 갔다 오는 거리와 지금 요한 발췌, 요기 나서는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빛보다도 더 빠른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여튼 한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광대무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아주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체험이 될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와선이나 입선이

음, 부처님의 이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많이 집니다.

부처님 마음이 동방에는 아축이라고 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라고 해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이라고 해 놓고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이라고 해 놓고 또는 약사라고 해 놓고, 칠성 부처라고 해 놓고 지신이라고 해 놓고 용신이라고 해 놓지만, 그 모든 이름들이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남편도 뺐다가 형도 뺐다가 아들도 뺐다가 하듯이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뉘면서 화하면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을 해 나가는 여여함을 바로

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얻으려 가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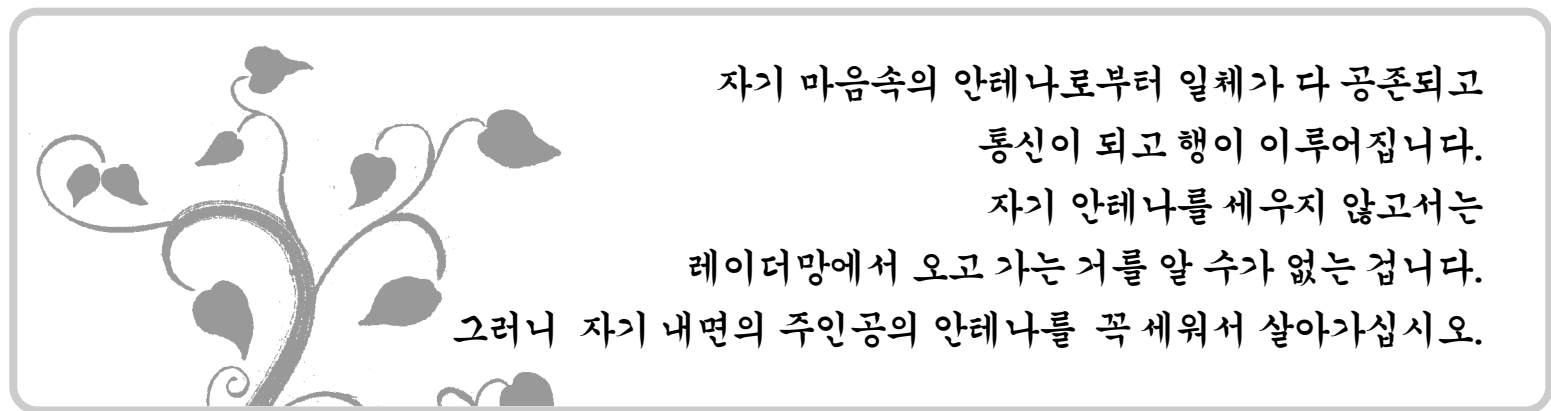
그런데 부처님과 중생을 돌로 보니까 이게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부처님과 중생들이 둘 아니게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바로 한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동참하여 분담해서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동참을 해서 경사를 이루게끔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기고 해 나간다.' 이러니까 '하이구,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사실 여러분한테 "기도를 드리니까 기도비를 가져오시오" 이렇게 해 본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과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 법신의 마음, 일체의 모든 마음이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일이고 내 일이고 돌로 보지 않을 때 때문에 그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역시 그렇고요. 또 사찰도 그렇고 역시 똑같이 그대로 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으로서 공식화하면서 그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끄달리고,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가정에서 더 실험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들이 같이 해 줘서 우리는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말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돼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듣지도 마시고 이상하게 보지도 마시고, 나도 또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할 것이니까요. 그냥 그저 주어진 대로, 답아지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책도 있으니까 보시고 그냥 실천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법이 이렇게 광대하고 이렇게 좋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이 알아보십시오.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빈 것 같습니다. 하하하! 아니, 아무리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엉뚱하게 그냥 이 말 저 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떡합니까? 하하하...

※ 위 법문은 1993년 6월 6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용도 크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 일체 정신계에서 모두가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나오, 불도 나오, 모두가 나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여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에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테나! 자기 마음속의 안테나, 안테나로부터 일체가 다 공존되고 통신이 되고 행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레이더망에서 오고 가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주인공의 안테나를 생활 속에서도 꼭 세워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옛것저게 일도 됩니까, 어려운 집에서 이사를 가는데 말입니다. 비를 다 맞을 것 같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사 갈 동안만이라도 비가 안 오면 좋지 않아요? 내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관했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어렵고 자식들은 많고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속도 상하고 눈물도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순간에 비가

나 행선이나 좌선을 모두 참선으로 돌려서 생활로 해 나가는 바로 일상생활 참선법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참선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법 아닌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바로 실험하고 깨치십시오. 우리는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아, 이 세상이 다,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무상하구나. 나는 바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관련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의 심부름꾼이로구나. 내 몸이 헐어져도 내 주인이 제 집을 고쳐 가지고 건강하게 해 가지고 가겠구나.'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몸이나나 네가, 네 심부름꾼이나나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자. 네 집 헐어진 거나 네가 고쳐야지. 네가 이끌어 가야지.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 자체밖에 없어.' 하고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러한 문제들도 모든 것을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아파서 맡겨 놓으면 약사로 나뉘어 응해 주실 거고, 또는 가난해서 거기 맡겨 놓으면 관세음으로 응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속에서 부처님 마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한생각이 그대로 지름길이 될 것이고,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어서 잘 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 인간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인간의 마음 자체가 바로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며,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행이구나. 그러니 네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안팎으로 움직여야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네 맞으로 돌리고 바로 네 마음으로 너를 다스리면서 잘 행해 나간다면 바로 네 자생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로 화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생활을 한번 이렇게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쁜 데 빠지지 않고 아주 싱그럽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관한다면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찰에서도 '어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 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주ewel드림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NAVER 주ewel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 책자(카탈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든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 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인은 **한불상** 02)2004-8216

통화 033-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